

코로나 시대의 지구인문학(Globalology)

조성환(원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허남진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교수)

I. 들어가며: 원불교사상연구원 소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는 2016년에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근대 한국종교의 공공성”¹⁾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연구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학에서부터 제창된 ‘개벽’은 한국의 자생적 근대화 운동(indigenous modernity movement)의 사상적 이념이었고, 이들은 척사파나 개화파와는 다른 제3의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개벽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들 개벽종교가 추구한 공공성은 인간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지구적(global) 차원의 생명(살림)과 평화, 회통과 공화(共和)를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지구적 공공성’(global publicness)으로 명명될 수 있다.

이러한 축적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다음 단계의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그것은 <지구화시대의 인문학>(Humaniti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이다. 간단히 줄여서 ‘지구인문학’(Globalology)이라고도 한다. 인문학이라고는 하지만, 문사철(文史哲)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학·정치학·종교학·인류학과 같은 사회과학과도 연결되어 있다. 서양에서는 1990년대부터 각 분야에서 ‘글로벌(지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연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지구인문학’이라는 독립된 학문분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II. 지구화와 지구학(Globalization and Global Studies)

1. ‘지구화’란 무엇인가?(What is Globalization?)

‘지구학’의 핵심개념은 ‘지구화’(globalization)다. 지구화는 “전 지구가 하나로 연결

1) 정식 명칭은 “근대문명 수용과정에 나타난 한국종교의 공공성”이다.

되어 간다”는 뜻이다. ‘지구화시대’(global age)는 이러한 지구화가 전개되는 시대를 말한다. 코로나의 별칭인 ‘팬데믹’(pandemic)을 연상하면 쉽다.

‘지구화’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이다. 전 세계에서 쉽게 목격되는 맥도널드, 스타벅스 그리고 초국가적 기구들은 지구화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현대인들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상호 관계가 긴밀해지고 서로 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구화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포착하는 개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구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주로 상호연결성의 글로벌화, 즉 개인, 집단, 사회가 하나의 지구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지구화가 반드시 연결성이나 단일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적(global)과 지역적(local)이 합쳐진 ‘지구지역적(glocal)’이라는 말이 있듯이(롤런드 로버트슨), 지구화와 함께 지역화도 동시에 진행되기도 한다. 가령 코로나의 경우에 전파는 지구적이지만 방어는 국가별로 행해졌고, 감염 위험으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는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구화가 좋은가 나쁜가를 둘러싼 논쟁도 진행 중이다. 지구화 논쟁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구화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과 평화와 같은 긍정적인 가치를 지구적으로 확산시키기도 했지만, 경제적 불평등이나 혐오 또는 기후위기 등은 지구화의 어두운 이면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초연결사회가 가져온 재앙이다. 그래서 혹자는 ‘탈지구화’를 주창하기도 하고, 지구적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지구화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2. 한국에서의 ‘지구화’ 수용

지구화 개념은 1990년대부터 서양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국에는 ‘세계화’라는 번역어로 먼저 소개되었다. 그러나 ‘세계화’는 지구화의 경제적 측면만을 가리킬 뿐이다. 즉 신자유주의와 같은 ‘경제적 지구화’(economical globalization)를 ‘세계화’라고 번역한 것이다. 한편 ‘세계화’는 ‘국제화’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이 경우에 세계화는 “지역적인(local) 것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이다. 가령 ‘한류의 세계화’는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지구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역사, 생태, 질병 등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학계에서도 ‘세계화’보다는 ‘지구화’라는 말을 쓰고 있다. 가령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는 ‘질병의 지구화’에 속한다. 또한 세계화가 ‘국가’를 단위로 하는 개념이라면, 지구화는 국가라는 경계들이 해체된 상황을 말한다. 가령 초국가기업의 등장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은 마치 코로나처럼 국경이나 국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지구화’ 개념을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린 장본인은 울리히 벡이다. 그가 1997년에 쓴 『What is Globalization?』(원저는 독일어)은 우리말로 『지구화의 길』(2000)로 번역되었다. “세계화의 길”이 아니라 “지구화의 길”인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울리히 벡의 비판이 깔려 있다. 울리히 벡은 ‘globalization’을 경제적인 세계화로만 이해하는 것은 지구화의 전체적인 측면을 놓치는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globalization은 정보·문화·생산·생태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위험의 지구화’에 대해서는 이미 1986년에 쓴 『위험사회(Risk Society)』(한글 번역은 2006년)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구화의 길』에서는 ‘지구화’를 비롯하여 지구성(globality), 지구주의(globalism), ‘성찰적 근대성’(reflexive modernity)과 같이 당시 서구학계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개념들을 상세히 논하고 있다.²⁾

3. 각 분야의 지구화

울리히 벡의 지적처럼 지구화는 지난 30여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지구화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 학문 분야에서도 ‘지구화’를 연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안 네데르베인 피테르서는 각 분야별로 지구화에 관한 연구주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2) 이에 대해서는 조성환, 「펜데믹 시대에 읽는 지구학(1) - 울리히벡의 『지구화의 길』을 중심으로」, 『개혁신문』 93호(2020년 5월)를 참고하기 바란다.

각 학문 분야의 지구화

분과학문	행위자, 영역	키워드
경제학	다국적기업, 은행, 기술	글로벌 기업, 세계 생산, 글로벌 자본주의, 신경제, dot.com
문화학	매스미디어, 정보통신, 광고, 소비	글로벌 빌리지, CNN World, 맥도널드화, 디즈니화, 혼종
정치학 국제관계학	국가의 국제화, 사회운동, 국제 비정부기구	국가들의 경제, 포스트 국제정치학, 글로벌 시민사회
사회학	근대성	자본주의, 국민국가, 산업화
철학	지구적 성찰성(global reflexivity)	지구윤리, 보편적 도덕성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세계시장
역사학, 인류학	문화 간 교역, 기술, 세계종교, 진화	지구적 흐름, 지구적 에큐메네(ecumene) 기업의 대규모화
생태학	지구생태학, 생태계의 통합	우주선 지구, 지구적 위기

* 안 네데르베인 피테르서, 『지구화와 문화』, 조관연·손선애 옮김, 에코리브르, 2017, 30쪽

또한 최근에 개정판이 나온 Manfred B. Steger의 『Globaliza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Oxford University Press, 2020, 제5판. 초판은 2003년)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What is globalization? (지구화란 무엇인가?)
2. Globalization in history (역사 속의 지구화)
3. The economic dimension of globalization (지구화의 경제적 측면)
4. The politic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지구화의 정치적 측면)
5. The cultur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지구화의 문화적 측면)
6. The ecologic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지구화의 생태적 측면)
7. Ideological confrontations over globalization (지구화를 둘러싼 이념적 대립)
8. The future of globalization (지구화의 미래)

여기에서는 지구화라는 하나의 주제를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생태의 각 분야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구화의 문화적 측면”, “지구화의 정치적 측면”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4. 지구화(Globalization)를 다루는 지구학(Global Studies)

한편 각 학문 분과에서 지구화 현상을 다룰 경우에는 ‘global’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학의 경우에는 ‘global sociology’, 역사학의 경우에는 ‘global history’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global sociology’는 우리말로 ‘글로벌 사회학’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³⁾ ‘global history’는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지구사’라고 소개되고 있다(중국에서는 지구사全球史).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Sebastian Conrad, *What Is Global History?*, 2017.

② 가와카미 신이치·도조 분지 저, 박인용 역, 『한권으로 충분한 지구사 : 지구의 6대 사건부터 인류의 탄생까지』, 전나무숲, 2010 (원제는 最新地球史がよくわかる本)

③ 오드 아르네 베스타 저, 옥창준 역, 『냉전의 지구사 - 미국과 소련 그리고 제3세계』, 에코리브르, 2020 (원제는 *The Global Cold War*)

④ 조지형·김용우 외, 『지구사의 도전 - 어떻게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설 것인가』, 서해문집, 2010.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사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빅히스토리이고 다른 하나는 각 주제별로 지구화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가령 ‘차(tea)의 지구사’와 같이). 빅히스토리로서의 지구사는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을 거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구사학자인 매즐리쉬(Bruce Mazlish)도 지구사를 “지구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성찰”과 “지역이나 국가의 층위가 아닌 지구적 층위에서의 연구”로 정의하고 있다(단, 전자가 지구사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지구적 차원에서 역사를 접근하는 ‘글로벌 히스토리’(지구사)를 ‘지구역사학’이라고 부른다면, ‘글로벌 사회학’도 ‘지구사회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구종교학’, ‘지구정치학’과 같은 명명도 가능할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지

3) 가령 사회학의 경우에는 로빈 코헨, 폴 케네디 저, 박지선 역, 『글로벌 사회학』, 인간사랑, 2012(원제는 “Global Sociology,” 초판은 2000년)이 대표적이다.

구학'(Global Studies)은 이런 학문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마치 조선후기에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흐름이 생겨났듯이, 서구학계에서도 1990년대부터 '지구학'이라고 불릴만한 새로운 학문조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사조를 지칭하는 '실학' 개념도 1930년대의 조선학 운동가들이 붙인 이름이듯이, 국내에서는 아직 '지구학'이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해외에서도 '글로벌'이라는 수식어는 붙고 있지만 주로 사회과학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지구학의 학문적 뿌리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별도로 있어서, 위의 표에서 소개한 지구화 현상들을 총합적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다. 2010년에 출간된 『An Introduction to Global Studies(지구학 입문)』이 그것이다.⁴⁾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Going Global (지구적이 되기)
2. Nation-state System (국민국가체제)
3.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기구)
4. Human Rights (인권)
5.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환경)
6. Population and Consumption (인구와 소비)
7. Infectious Disease and Globalization (감염병과 지구화)
8. The Gendered World (젠더화된 세계)
9.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와 통신 기술)
10. War and Violent Conflict (전쟁과 폭력 갈등)
11. Peace (평화)

이와 같이 '지구학'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지구적 이슈'(global issue)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폭넓은 학문분야를 지칭하고 있고, 영어로는 'Global Studies'라고 표기되고 있다.

5. 지구학 연구 현황

1990년대 아시아, 유럽, 미국 대학에 '지구학과'가 설립되었고, 지구학 관련 학회,

4) 저자는 캠벨(Patricia J. Campbell), 맥키논(Aran Mackinnon)과 스티븐스(Christy R. Stevens)이다.

연구소들이 등장하는 등 빠르게 독립된 학문의 한 분야로 정착했다. 지구학과의 커리큘럼은 ‘지구 정치경제와 발달’, ‘지구적 문화와 이데올로기’, ‘지구적 거버넌스’, ‘지구적 의식(Global Consciousness)’, ‘이주와 난민’ 등을 다루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설정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대 지구학 센터장을 역임했던 에드워드 콜로드지(Edward Kolodziej)는 지구학의 연구와 실천에 적합한 지구적 이슈로서 인권과 생태적 재앙, 바이러스 감염,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을 지적한다.⁵⁾ 실제로 최근 들어 지구학 학회나 연구소의 주된 관심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역시 지구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그렇지만 다소 제한적이다. 국내 여러 대학에서 ‘Global Studies’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제 및 지역연구, 국제통상 등 기존의 학제프로그램을 지구학 프로그램으로 확대 재편하여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학 학문적 외연은 매우 좁다.



서강대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

지구학 관련 대표적인 국내 연구소는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Critical Global Studies Institute)와 이화여대 지구학연구소(Institute of World and Global History)이다.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는 연구소의 영문 이름 'Critical Global Studies Institute(CGSI)'가 시사하듯이, 지구학을 지향하는 연구소이다.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권력과 자본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지구화’를 탈피하고 ‘아래로부터의 지구화’라는 전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인간의 삶의 차이와 경험의 다양성을 ‘보편’으로 지워버리는 제국의 인문학과 ‘특수’의 이름으로 본질화하는

5) Patricia J. Campbell, Aran MacKinnon, Christy R. Stevens, *An Introduction to Global Studies*, Wiley-Blackwell, 2010, p.3

거부한다.
민족의 인문학을 ~~지향하고 있다.~~



이화여대 지구사연구소

조지형 교수에 의해 2008년에 설립된 ‘이화여대 지구사연구소’는 서구중심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세계사 연구 경향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 전 지구적 조망과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사·지구사 연구와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지구화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생태문제 등,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Ⅲ. 지구인문학(Globalogy)의 제안

1. ‘세계사’에서 ‘지구사’로

서양에서 지구사가 대두되게 된 주된 원인은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울리히 벡은 20세기에 서구에서 탄생한 학문들은 ‘국가’ 중심의 ‘국가학’이었다고 비판한다. ‘국사’나 ‘국문학’과 같이 국가 단위로 학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세계사’(World history)는 이러한 ‘국사’들의 집합체이다. 그런데 이 때 세계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유럽’이었다. 그 이유는 ‘근대화’의 시작이 유럽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쓴 세계사는 서양에서 근대화가 진행되어 그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다는 서구 근대사의 지구적 적용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최근에 등장한 ‘지구사’(global history)는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서양의 대표적인 지구사가인 세바스티안 콘라드(Sebastian Conrad)는 『What is Global History?』(Princeton University, 2016)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구사’는 그동안 역사가들이 과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도구들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확신에서 탄생하였다. (...) 특히 근대 사회과학과 인문학이라는 두 개의 ‘태생적 결합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이 결합들의 기원은 19세기 유럽에서의 근대 학문의 형성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첫 번째 결합은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탄생이 (국민) 국가에 얽매어 있었다는 것이다. (...) 역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사(國史)에 한정되어 있었다. 두 번째 결합은 근대 학문분야가 지금까지 유럽중심적이었다는 것이다. (...) 국가, 혁명, 사회, 진보와 같은 분석적 개념들은 구체적인 유럽의 경험을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보편적인) 언어의 이론으로 전환시켰다. (...) 지구사는 근대 학문의 두 개의 불행한 반점(=태생적 결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pp.3-4).

이에 의하면 근대의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은 19세기에 유럽에서 탄생하였는데, 그것은 ‘국민국가의 탄생’과 같은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지구사는 국가 중심과 유럽 중심이라는 두 가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역사서술 방식이다.

지구사 연구자들이 ‘세계(world)’라는 말 대신에 ‘지구(globe)’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와는 달리 ‘지구’는 서구중심주의에 오염되지 않았고, 국제적(international)이나 초국가적(trans-national)과 같은 용어에서와 같이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⁶⁾

한국의 대표적인 지구사 연구자인 조지형도 지구사가 유럽중심주의, 중화주의, 자민족중심주의, 국가(일국)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각과 방법론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특히 지구사는 20세기 후반의 지구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았다고 한다.⁷⁾

이처럼 하나의 학문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지구사는 전 지구적 포괄성, 상호연관성,

6) Dominic Sachsenmaie, Global History, Global Debates, in: Connections. A Journal for Historians and Area Specialists, 03.03. 2005.

<www.connections.clio-online.net/debate/id/diskussionen-582>

7) 조지형, 「지구사의 미래와 역사의 재개념화」, 『역사학보』 200집, 2008, 204쪽.

보편성, 탈유럽중심주의를 핵심적인 아젠다로 내세우면서 인류사 전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탈중심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08년에는 지구적 차원에서 지구사 연구자들을 결속시키고, 지구사를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등과 더불어 하나의 역사학 세부분야로 확립하기 위해 ‘지구사·세계사 학회 네트워크(Network of Global and World History Organizations)’라는 연구 단체가 결성되었다.

2.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구인문학(Globalogy)

지구사와 같이 인간과 국가 중심의 근대적 인문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구적 차원의 인문학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 고안한 개념이 ‘지구인문학’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구학은 여전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거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구성(Globality) 개념에는 인간을 제외한 비인간 존재들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크라바르티는 지구화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인간중심적이라고 지적하면서,⁸⁾ 지구 시스템이 인간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기 위해 인간중심주의적(Homocentric, anthropocentrism) 사고에서 생명중심적(Zoocentric, non-anthropocentrism)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

자신을 ‘지구학자’(Geologist 또는 Earth Scholar)라고 자칭한 토마스 베리(Thomas Berry, 1914~2009) 역시 지구를 착취의 대상이 아닌, 사귀어야 할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태대(Ecozoic Era)’라는 시대를 제안하였다. 베리는 지금까지의 학문들은 모두 인간이 지구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지구의 목적을 위해 지구를 연구할 때가 왔다고 제창하였다.¹⁰⁾

이와 같이 토마스 베리는 ‘지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들이 지구지향적 삶을 살면서 지구공동체에서 다른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자신의 학문의 영역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학문을 이 글에서는 ‘지구인문학’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지구인문학은 인간 이외의 존재들도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인

8) Dipesh Chakrabarty, “The Human Condition in the Anthropocene”, *The Tanner Lectures in Human Values*, Yale University, February 18-19, 2015, p.141.

9) Ibid, pp. 165-167.

10) 토마스 베리 저, 이영숙 옮김, 『토마스 베리의 위대한 과업』, 대화문화아카데미, 2014.

문학의 대상으로 삼는다. 지구인문학은 지구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출발하며, 인간 중심이 아닌 지구 중심의 지구화를 학문적 모토로 삼는다.

실제로 법학 분야에서는 토마스 베리의 제안에 따라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도 생존권을 보장하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강금실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가 출간되었다.

또한 인류학 분야에서도 종래의 인간 중심의 인류학을 넘어서(beyond) 지구적 차원의 인류학이 시도되고 있다. 에두아르도 콘(Eduardo Kohn)의 『숲은 생각한다』(차은정 번역)가 그것이다. 원제는 “How Forests Think: Toward an Anthropology Beyond the Human”으로 2013년에 나왔다. 부제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인간 중심의 인류학을 넘어서는’ 인류학을 시도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에 맞추어 보면 ‘지구인류학’(Global Anthropology)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은 1910년에 나온 뤼시앙 레비브뤼엘(Lévy-Bruhl)의 “How Natives Think”(원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원용한 것이다(한글번역은 김종우 역 『원시인의 정신세계』). 레비브뤼엘이 ‘이성’이라는 사유능력을 유럽인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다면, 에두아르도 콘은 인간 이외의 존재들에게서도 ‘사유’ 능력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적인 인류학을 넘어서고(beyond) 있다.

이처럼 현대 학문은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지구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지구인문학도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는 ‘지구살림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단지 ‘문사철’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지구법학이나 지구인류학, 또는 지구민주주의나 지구종교학, 지구평화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 영역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지구적 위기는 인간이 지구 시스템 자체를 교란시킨 결과이다.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전환(Global Transformation)이 필요하고, 지구적 연대, 즉 지구공치(地球共治, Global Governance)가 요청된다. 아울러 인간 중심의 ‘인간세’ 또는 ‘인류세’에서 지구중심 혹은 생명중심의 ‘지구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구인문학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학문이다.

3. 한국철학 속의 지구인문학

지구인문학적 문제의식은 한국철학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조선 초기의 유학자인 퇴계 이황은 추만 정지운과 함께, 중국의 「태극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천명도」를 제작하였다. 「태극도」가 태극에서 만물이 생성분화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그린 일종의 ‘음양오행도’라고 한다면, 「천명도」는 우주를 하나의 ‘원’으로 도상화하고, 그 안에 인간과 만물을 배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토마스 베리가 제창한 ‘지구공동체’의 도상화라고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원불교의 ‘일원상’을 연상시킨다.

또한 조선후기 실학자로 알려진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서양의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지구구형설과 지구자전설 등을 주장하면서, “세계의 중심은 없다”는 탈중화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 뒤를 이은 기학자(氣學者) 최한기도 『기학(氣學)』(1857)이나 『지구전요(地球典要)』(1857) 등에서 사유의 중심을 중국에서 지구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현대 서양의 지구학이나 지구인문학이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었다고 한다면, 조선후기의 실학이나 개벽학은 중화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동학에서 시작하여 천도교, 원불교에 이르는 근대 한국의 개벽종교에서도 지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구적 상상(global imaginary)’이나 ‘지구적 의식’(global consciousness)과 같은 개념을 찾을 수 있다. 해월 최시형의 “천지부모 만물동포” 사상, 소태산 박종빈의 ‘일원’과 ‘사은’, 정산 송규의 ‘한울안’과 ‘삼동윤리’, 천도교와 원불교의 사해일가(四海一家)나 세계일가(世界一家)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인간과 만물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토마스 베리의 ‘지구공동체’(Global Community) 개념과 상통하고 있다.

또한 1994년에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은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 「문화는 숙명인가?」(Is Culture Destiny?)에서 동학이나 불교와 같은 ‘아시아적 가치’를 언급하면서 ‘지구민주주의’(global democracy)개념을 제창하였다. 그가 말하는 ‘지구민주주의’는 인간 이외의 존재들에게도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학사상가 해월 최시형(1927~1898)이 제시한 ‘경물(敬物)’ 개념을 연상시키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생태민주주의’나¹¹⁾ ‘지구법’과도 상통하고 있다.

11) 가령 Roy Morrison 저, 노상우 역 『생태민주주의』, 교육과학사, 2005; 구도완, 『생태민주주의 : 모두의 평화를 위한 정치적 상상력』, 한티재, 2018.

IV. 나오며 - ‘지구인문학센터’(Center for Globalogy)의 제안

현재 국내외 ‘지구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인문학’ 명칭의 선점이 필요하다. ‘지구인문학센터’를 통해 다양한 학술연구사업(인문사회연구소사업, HK+사업 등)에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미루어볼 때, ‘지구인문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지구인문학센터의 설립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만일 ‘지구인문학센터’ 설립이 가능하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번역서와 총서 등 지구인문학 관련 연구 성과들을 ‘지구인문학센터’의 이름으로 발신하여, 차후 학술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원불교사상연구원 주최 ‘지구화시대의 인문학’ 학술대회 발표논문들을 ‘지구인문학 총서’로 발간할 계획이며, Manfred B. Steger의 『Globaliza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과 같은 지구화 입문서의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학과 지구학을 주제로 영어 논문과 단행본 출간 등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구인문학센터’는 학제 간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광대의 다양한 연구소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고, 원광대 건학이념과 학문적 방향을 연결시켜 원광대 인문학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